

10. 조선중기의 회화 (1)

1. 조선 중기 안견과 화풍과 절파화풍을 구사했던 화가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안견과 화풍의 계승과 절파화풍의 유행

절파(浙派): 명나라초 절강성(浙江省) 출신의 대진(戴進)을 시조로 하며, 그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절강지방 양식의 영향을 받았던 화가들의 화풍. 남송대(南宋代)의 원체화풍(院體畫風)을 주로하고 그 밖에 이곽파(李郭派)화풍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하여 이루어짐. 절강성 출신의 화원들에 의해 명대(明代) 화원에 뿌리박게 되어 15세기 후반부터 화원의 주도화풍이 됨

김시(金視, 1524~1593)

- 자는 계수(季綏), 호는 취면(醉眠), 양송헌(養松軒). 본관은 연안(延安)
- 최립(崔岌)의 문장, 한호(韓濩)의 글씨와 더불어 삼절(三絶)로 일컬어짐.
- 김안로(金安老)의 아들. 김안로는 둘째 아들 희가 효혜공주와 혼인하여 중종의 부마가 되자 이를 계기로 권력을 남용. 김시는 14살 때 자신의 초례청에서 부친이 붙잡혀가는 일을 당함. 과거를 포기하고 서화의 길로 매진함.

<한림제설도>

- 1584년, 60세작. 안사확(安士確) 위해 그림.

“萬曆甲申秋養松居士爲安士確作寒林霽雪圖”

※안견과 화풍 위주로 절파 화풍 가미

<동자견려도>

함윤덕(咸允德)

<기려도>

-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와 비슷한 구성 및 필법
- 인물이 초점; 인물과 자연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 결합된 點景을 중점적으로 묘사

이승효(李崇孝)

- 자는 백달(伯達), 전주인
 - 이흥효와는 형제. 아들 이정(李楨)
- <어옹귀조도>

이흥효(李興孝, 1537-1593)

명종의 어진 그렸던 화원

- 자는 중순(仲順). 본관 전주

<산수도>

1593년작

“萬曆癸巳夏避亂洪陽病中作”

전 이흥효 《산수화첩》(6폭)

- 안견과 화풍의 전통을 보여줌.

- 본래 8폭으로 이루어진 팔경도일 가능성이 큼.
- 마지막 폭인 <동경산수도>의 우측상단에 '홍효'라는 주문방인이 찍혀 있는데 후낙일 가능성이 크지만 16세기 화풍 보여줌.

이경윤(李慶胤, 1545-1611)

- 자는 수길(秀吉), 호는 낙파(駱坡), 낙촌(駱村), 학록(鶴麓)
- 전주 이씨 익양군파로 성종의 8남 익양군 이회의 후손
(이경윤의 아들 이위국(1597-1673)이 이성군파인 순의군 경은에게 출계되어 성종의 11자 이성군 이관의 종증손으로 잘못 기술됨)
- 학림정(鶴林正) 체수받음.
- (cf) 아우 죽림수(竹林守) 이영윤(李英胤)은 영모, 화조에 능했음.
- 두 차례 중국에 사절로 다녀옴

<시주도>, 산수인물첩 중에서(호림박물관)

- 최립이 1598년 제찬함.
- 《산수인물첩》은 홍사문이라는 사람이 왜란 중에 모은 것.
- 최립 · 홍사문이 이경윤의 것으로 비정

<주계단안도>, 최립의 찬시(讚詩)

- 전 이경윤, <산수인물도>, 《낙파필회첩(駱坡筆戲帖)》
- 이경윤의 그림에 유몽인, 이호민의 제시가 어우러진 서화첩.
- 데라우치문고 중의 서화첩으로 일본에서 반환한 유물.

<산수인물도>

<탁족도>

<관폭도>

※이경윤은 소경산수인물화를 종종 그렸고, 이런 범주의 그림이 유행하게 하는데 큰 몫 했음.

이정(李楨, 1578-1607)

- 자는 공간(公幹), 호는 나옹(懶翁). 본관은 전주.
- 父 이승효, 숙부 이흥효
- 30세에 요절
- 허균이 쓴 「이정애사(李楨哀辭)」에 “李小佛 - 李陪連 - 李崇孝 - 李楨”이라 하였고 『稗官雜記』에는 이정의 조부가 이상좌라 언급.
- 이상좌가 이배런 인지는 확인이 안 됨.

<산수도>

<한강조주도>(《산수화첩》)- 예찬품

이징(李澄, 1581-1674년 이후)

- 자는 자함(子涵), 호는 허주(虛舟), 본관은 전주
- 이경윤(李慶胤)의 5남2녀중 서자
- 20대부터 나라 안에서 최고 화가로 손꼽힘

광해군~인조조에 군왕의 충애를 받으며 활약(특히 40-60대)

-광해군1년(1609) 29세 원접사(遠接使) 이상의(李尙毅, 1560-1624), 종사관(從事官) 허균(許筠, 1569-1618)을 따라 서행(西行)에 참여

-광해군 10년(1618) 38세 종사관 서국정(徐國禎) 따라 화원 사과의 직책으로 원접사 수행

-인조 연간에 궁중 회화에 참여

-인조5(1627) 소현세자 가례 당시 병풍 제작, 감독

-인조16(1638) 인종 장열후 가례 시 병풍 제작 및 감독

-인조6 태조 영정 개수. 이신흙과 함께

-어진의 제작, 병란으로 유실된 회화의 복구, 문사들의 모임이나 시에 의거해 그림 제작.

-60대 중반 맹영광(孟永光)과 인연 맺음.

-94세(1674년) 이후까지 생존했던 듯.

※직업화가와 문인화가의 성격 공유

이징의 그림이 17세기 회화를 대변

<연사모종도>

<니금산수도>

<화개현구장도(花開縣舊莊圖)>

1643년, 이징이 63세때의 작품. 지리산 화개현에 있는 정여창의 별장을 그린 것. 정여창은 김종직의 문인으로 지리산에 들어가 섬진 나무에 별장을 짓고 대나무와 매화를 심으며 생활하였으며, 오경과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하단에 정여창의 칠언절구 한 수, 유희인의 악양정시서와 시, 신익성의 후지, 조식의 유두류산록, 정구의 유가야산록에서 발췌한 기록이 신익성의 글씨로 적힘.

김명국(金命國, 1600-1662)

-초명은 명국(明國), 자는 천여(天汝), 호 취옹(醉翁), 연담(蓮潭), 본관은 안산

-호방한 성격에 엄매인데 없고 거리끼는 것 없는 인물

-1636년, 1643년 통신사 따라 일본행

<설중귀려도>

<달마도>

*달마는 인도 스님.

520년경 중국에 건너와서 崇山 少林寺에 머물렀다. 당시 이론 중심의 敎宗 일변도였던 중국 불교계에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以心傳心)의 禪宗의 가르침 최초로 전해 중국 禪의 제1대 조사가 됨. 9년 동안 벽을 마주하고 수련했다함. 당시 조정과 귀족에 기대던 기성 종단을 꾸짖어 깨달음과 실천행 강조.

-선종화(禪宗畵), 감필법(減筆法)

<수로예귀도>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 남극성, 혹은 壽星을 의인화하여 그린 것. 회갑 등의 생일에 기증하는 풍습이 고려시대부터 유행.

한시각(韓時覺, 1621-?)

호는 설탄(雪灘)

화원으로 교수를 지냄. 이명옥의 장인.

1655년 통신사를 따라 일본 다녀옴.

《복새선은도권》

현종5년(1664년) 함경도 길주목에서 특별히 실시되었던 문무 양시에 대하여 왕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그린 기록화. 변방지역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곳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길주과 시도>는 시험 장면을, <함흥방방도>는 함흥관아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장면을 그림. 두루마리의 첫머리에는 ‘복새선은’이라는 제목이 예서체로 쓰였으며, 끝에는 시험관 명단, 시험일자, 제목, 합격자 명단, 합격자 출신 군벌통계 등이 적힘.

《북관수창록(北關酬唱錄)》

북도시관(北道試官)으로 임명된 김수항(金壽恒, 1621-1679)이 함경도에 도착한 뒤 성진에서 지방관과 합류하여 칠보산을 탐승할 때 여러 문인들과 지은 수창시와 칠보산 주변의 명승을 그린 실경산수화를 묶어 제작한 것이다. 모두 32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6면이 북관의 실경을 그린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 문인들의 수창시로 꾸며져 있다. 17세기 실경산수의 전통을 보여준다.

李明郁

한시각의 사위, 도화서 교수 지냈으며, 숙종의 아낌을 받음.
맹영광의 영향 받았던 것으로 믿어짐(?)

【참고자료】

-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한국 역대 서화가 사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